

2016년 2/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 요 약 】

- 2016년 2/4분기 제조업 BSI는 89를 기록,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 부진 지속
 - 중국경기 둔화, 저유가, 대북 리스크 등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에서는 가계 소비 위축, 주력 업종 업황 침체 등으로 부진이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 역시, 저유가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는, 영업이익(85), 매출액(87), 고용(8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 하회
 - 영업이익 부문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주 감소 및 원가 부담 증가, 공급과잉 및 경쟁 심화, 원청업체의 경영 위기에 따른 손실 전가 등으로 악화 전망
 - 매출액 부문은 가계 소비 부진, 기업 투자 위축 등 경제 주체의 소비·투자 감소,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 전망
 - 고용 부문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행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가 절감 및 사업 재편을 위해 인력 규모를 최소화함에 따라 악화 전망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74), 의복모피(80), 1차금속(88)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준치(100)를 밑돌며 경기 악화를 전망한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부품(111)은 경기 호전 전망
 - 조선기자재 업종은 대형조선소 경영 위기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 지속, 기 수주물량의 생산 지연에 따른 납품 감소 및 연기, 과당경쟁으로 업황 부진 전망
 - 의복모피 업종은 합리적 소비 확대에 따라 저가 상품 중심으로 소비자 구매 흐름이 집중, 기업 매출이 감소되고 있으며, 업체 간 저가경쟁으로 수익성 및 성장세 악화 전망
 - 1차금속 업종은 중국의 철강 감산 계획 발표에 따른 철강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전반의 수요 침체 국면에 따른 출하 부진 및 재고 증가 등으로 생산 활동 위축 전망
- 2016년 2/4분기 주요 대내외여건으로는 『내수시장 둔화』 (45.7%)
-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내수진작』 (55.4%)

목 차

1. 지역 경기전망	3
2. 부문별·업종별 경기전망	4
가. 부문별 전망	4
나. 업종별 전망	5
3. 2016년 2/4분기 주요 대내외여건	7
4.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7

I. 조사개요

1. 조사명

- 「2016년 2/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2. 조사 목적

-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
-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

3. 조사 기간 : 2016. 3. 2 ~ 3. 31

- 조사표 발송 및 회수 : 2016. 3. 2 ~ 3. 18
- 조사표 집계내용 확인 : 2016. 3. 21 ~ 3. 25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16. 3. 28 ~ 3. 31

4. 조사 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350개체. (유효 응답 업체는 184개체)

5. 조사 방법

-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응답률 제고를 위해 해당업체 면담 및 전화조사를 병행

6. 조사 내용

- 전반적인 체감경기
- 매출, 영업이익, 고용, 설비투자 등 부문별 실적 및 전망
- 경영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등

7. 주의사항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 가 되지 않을 수 있음

8.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의미

$$\text{기업경기전망지수} = \frac{\text{호전(증가)표시 업체수} - \text{악화(감소)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1. 지역 경기 전망

□ 2016년 2/4분기 제조업 BSI는 89를 기록,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 부진 지속

- 중국경기 둔화, 저유가, 대북 리스크 등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에서는 가계 소비 위축, 주력 업종 업황 침체 등으로 부진이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 역시, 저유가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는, 영업이익(85), 매출액(87), 고용(8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 하회

- 특히, 영업이익 부문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주 감소 및 원가 부담 증가, 공급과잉 및 경쟁 심화, 중국 및 신흥국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납품단가 하락, 원청업체의 경영 위기에 따른 손실 전가 등으로 악화 전망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74), 의복모피(80), 1차금속(88)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준치(100)를 밑돌며 경기 악화를 전망한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부품(111)은 경기 호전 전망

- 조선기자재 업종은 국내 조선사 수주급감으로 업황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형조선소 경영 위기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 지속, 기 수주물량의 생산 지연에 따른 납품 감소 및 연기 전망. 수출 부문 역시, 글로벌 조선 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감소, 해외 조선사들의 단가 인하 압력 심화로 부진 지속 전망



□ 2016년 1/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84를 기록

2. 부문별·업종별 경기전망

가. 부문별 경기전망

□ 영업이익(85), 매출액(87), 고용(8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 하회

- **영업이익 부문**은 기업들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수주 감소 및 원가 부담 증가, 공급과잉 및 경쟁 심화, 중국 및 신흥국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납품단가 하락, 원청업체의 경영 위기에 따른 손실 전가 등으로 악화 전망
- **매출액 부문**은 중국경기 둔화, 저유가, 대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는 가계 소비 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 등 경제 주체의 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주력 업종 업황 침체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수출 역시 저유가 지속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부진이 전망
- **고용 부문**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 창출이 부진한 가운데,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기업들이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어 고용 확대를 저해. 또한, 원가 절감 및 사업 재편을 위해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고, 당분간 신규 고용을 자제할 것으로 보여 고용 부문의 둔화가 전망

【 부문별 BSI 변화 】

구 분	실 적		전 망	
	'15.4/4분기	'16.1/4분기	'16.1/4분기	'16.2/4분기
체 감 경 기	88 →	84	90 →	89
매 출 액	93 →	78	91 →	87
영 업 이 익	89 →	77	88 →	85
설 비 투 자	94 →	91	93 →	89
고 용	- →	90	- →	87

나. 업종별 전망

- 조선기자재(74), 의복모피(80), 1차금속(88)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준치(100)를 밑돌며 경기 악화를 전망한 가운데, 전체 업종 중 유일하게 자동차부품(111)은 경기 호전 전망
- 조선기자재 업종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국내 조선사 수주급감으로 전반적인 업황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형조선소 경영 위기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 지속, 기 수주물량의 생산 지연에 따른 납품 감소 및 연기, 기자재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침체 전망. 수출 부문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 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감소, 해외 조선사들의 단가 인하 압력 심화 등으로 부진 전망
- 의복모피 업종은 국내 경기 부진 지속과 가계 부채 증가에 따라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 소비 확대에 따라 저가 상품 중심으로 소비자 구매 흐름이 집중,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업체 간 저가경쟁으로 수익성 및 성장세 악화 전망. 또한, SPA 브랜드의 시장 잠식, 아웃도어 시장의 포화 상태 지속 등으로 지역 의류 업체의 판매 부진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1차금속 업종은 중국의 철강 감산 계획 발표에 따라 중국 철강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사 역시 가격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 전반의 수요 침체 국면에 따른 출하 부진 및 재고 증가 등으로 생산 활동 위축이 전망되고 있으며, 과잉설비에 따른 경쟁심화로 단기간의 업황 회복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내수 부문에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주력 모델의 신차효과(K7, EQ900 등), 친환경차 시장 공략 확대 등으로 부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출 부문 역시, 현대차 중국 4,5공장 매출 증가 전망, 북중미 현지 신공장 가동, 선진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부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황 호전이 기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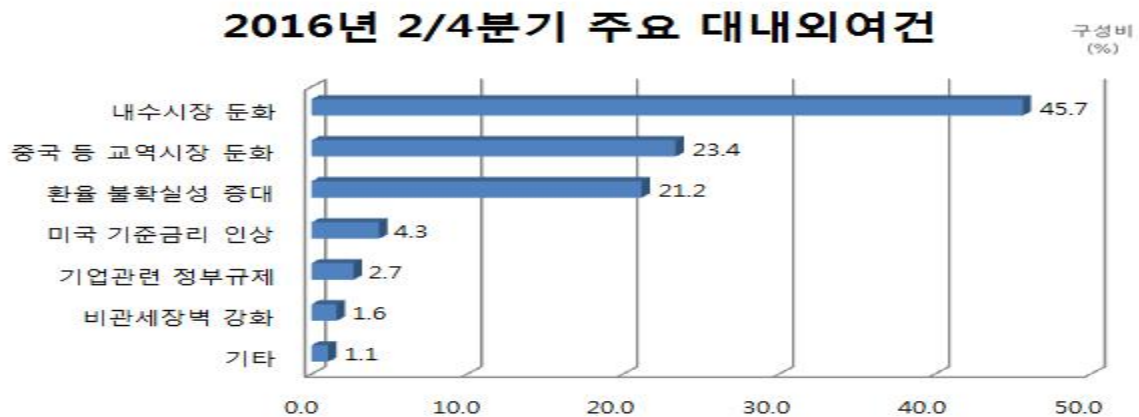
【 업종별 BSI 변화 】

구 분	실 적		전 망	
	'15.4/4분기	'16.1/4분기	'16.1/4분기	'16.2/4분기
음 식 료 품	80 →	80	90 →	90
섬 유 제 품	83 →	70	92 →	90
의 복 · 모 피	70 →	70	80 →	80
신 발 제 품	100 →	70	90 →	80
화 학 · 고 무	100 →	100	111 →	89
비 금 속 광 물	100 →	73	91 →	91
제 1 차 금 속	88 →	94	76 →	88
조 립 금 속	80 →	82	87 →	88
기 계 · 장 비	89 →	78	84 →	83
전 기 · 전 자	72 →	83	82 →	94
자 동 차 부 품	105 →	116	115 →	111
조 선 · 기 자 재	79 →	68	74 →	74
기 타	86 →	86	86 →	86

3. 2016년 2/4분기 주요 대내외여건

□ 2016년 2/4분기 주요 대내외여건으로는 『내수시장 둔화』(45.7%)가 가장 많았음.

- 이어, 『중국 등 교역시장 둔화』(23.4%), 『환율 불확실성 확대』(21.2%), 『미국 금리 인상』(4.3%), 『기업관련 정부규제』(2.7%) 순



4.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내수진작』 의견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25.0%, 『기업 인력문제 해소 지원』 13.6%, 『규제 개선』 3.8%, 『창조경제 활성화』 1.6% 등의 순

